

2026년 신년사

「2026년,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개발협력, 대한민국의 신뢰를 높이는 KOICA

존경하는 코이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개발협력 최전선을 지켜주신 임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값진 성과를 함께 만들어 주신 전 세계 파트너와 봉사단원 여러분,
그리고 코웍스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협력의 도전과제와 우리의 방향>

임직원 여러분,

2026년의 개발협력 환경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재정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개발재원과 협력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ODA의 효과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익 기여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줄곧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와 국익 창출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축적할 때,
그 신뢰는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안보 역량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국제사회 기여와 국익을 함께 이루는 길, 바로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입니다.

2026년, 코이카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공헌을 통해
정부의 G7+ 외교 강국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협력국에는 희망을, 파트너에게는 성장을,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정부에게는 분명한 성과를 드리는
새로운 약속을 더욱 또렷이 하겠습니다.

전략적·통합적 ODA를 통해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
협력국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 미래성장형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개발협력의 성과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네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협력국·파트너·국민·정부를 향한 4대 비전>

첫째, 협력국의 자립을 위한 개발협력입니다.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방문을 계기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그라민은행 창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시스템과 제도가 낳은 결과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협력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품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협력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협력국 국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립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개발협력의 본질입니다.

둘째, 파트너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개발협력입니다.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정부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 경험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다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혁신조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개발협력과 연계한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해외 ODA 현장에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 연계와 적용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국에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우리 기업에는 KOICA 사업을 마중물로
글로벌 ODA 시장까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축소되는 개발재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혼합금융 방식으로 기업 생태계 활성화, 인프라 확대 촉진 등
관련 핵심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코이카는 파트너에게 든든한 가교이자 마중물이 되고,
“코이카와 함께하면 더 넓은 세계가 열린다”는 확신을 주는
상생의 생태계를 완성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자부심 있는 개발협력’입니다.

KOICA와 ODA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우리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방증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본이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35년간 전 세계로 파견된 9만 4천여 명의 봉사단원과
개발협력 인재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온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기술과 K-Culture가 지구촌 곳곳에 스며든
감동의 순간들을 국민께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개발협력 일경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 전환에 따른 다양한 해외파견 희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코이카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갑시다.

넷째, 정부에게 성과로 증명하는 신뢰받는 코이카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48개국에 해외조직을 보유한
대한민국 개발협력의 최정예 실행조직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맡겨주신 예산과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출발점입니다.

재정의 건전한 집행, 타협 없는 안전관리, 반부패와 준법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의 정책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명확한 데이터와 실증적 성과로 입증하여
명실상부한 ‘유능한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 2026년 4대 중점 실행 방향>

임직원 여러분,
비전은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전을 실제 변화로 만들 네 가지 실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적 ODA 추진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중복은 줄이고 임팩트는 키우는 체계로 거듭나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국가 차원의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에 기여하고
개발협력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조직·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위원회 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9월에 공식 출범한 외교부-코이카 제도개선 TF를 통해
ODA 책무성 강화와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전략 구상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26년의 첫걸음으로, 통합적 ODA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코이카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ODA 시행기관과의 공공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전문성에 기반한 융합형 사업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수원국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행경로를 마련하고,
KOICA를 모범사례로 타 무상원조 시행기관에도 적용 가능한
책무성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략적 ODA를 중심으로 우리의 강점을 미래로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35년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의제를 결합해야 합니다.
다주체 파트너십으로 우리의 강점을 브랜드화하고 이를 확산하여
장기적이고 유연한 대표 모델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6년 2월 발표될 예정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은
향후 5년간 추진될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이를 토대로 사업형태, 지역, 분야별로 분산된 사업전략을 체계화하고
AI·디지털·문화(K-Culture) 등 한국의 비교우위를 상생의 개발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ODA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재구성을 추진하고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연수 1·2팀과 인공지능전환실을 신설하여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선제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개발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인력·예산·권한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협력국의 치안·정세 변화 등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운영 체질을 확립해야 합니다.

장기 부진 사업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와 적기 취소·전환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사업·예산·성과 데이터를 연결한 점검 체계를 상시화하여
집행의 건전성과 성과의 가시성을 동시에 높여가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난제 해결을 지원하고 보편적 가치와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AI·디지털 전환, 인도적 위기 등 복합적 난제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수행기관(Provider)을 넘어
해법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설계자(Architect)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아세안·유라시아 협력의 발전적 계승, 중동·유라시아 진출 확대 등
정부의 핵심 외교 전략이 코이카를 통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별 추진 계획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아세안 지역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 지속을 비롯하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를 위한 거점 국가별 사업 추진 확대,
아프리카 대상 맞춤형 실용적·상호 호혜적 ODA 추진,
한·중남미 경제협력 기반 조성 및 삼각 협력 확대,
정부 중동구상(SHINE 이니셔티브) 및 한·중앙아 정상회의 이행 지원을 위한
기존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편까지,
2026년의 코이카는 현장의 성과로 국민과 정부, 국제사회에 증명해 나가는
한 해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코이카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35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손자병법의 **이환위리(以患爲利)**는 고난을 기회로 삼는다는
역사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되,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변화의 파고(波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만이
혁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코이카가 걸어온 35년의 역사를 딛고,
다시 한번 새로운 35년의 길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2026년 1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 원 삼